**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17절>**

**1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2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3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4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5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6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8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9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10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11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12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13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14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15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16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17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때때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어디까지 사랑해야 하는가. 잡히시기 전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사건을 기록하면서. 사도 요한은 그 첫머리에 의미심장한 한 마디를 던집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 ‘끝까지’라는 단어가 유독 눈에 들어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시간적으로, *그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셨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상황적으로, *그런 상황에서도* 사랑하셨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행위적으로, *그렇게까지 하시며* 사랑하셨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관계적 맥락에서, *그런 사람까지* 사랑하셨다는 뜻일까요. 어쩌면 요한은 이 모두를 염두에 두고 ‘끝까지’를 언급했는지 모릅니다.

먼저, 시간적 맥락을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습니다. 그 말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을, *마지막으로 한번더*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데 쓰셨습니다.

다음, 상황적 맥락을 봅시다. 그 당시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신데, 그들은 서로 “누가 크냐”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새로 도래할 세상에서 한 자리 차지할 희망에 부풀어 있었을까요. 개중 상황 판단이 빨랐던 한 제자는,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감지하고. 은밀히 대제사장들을 찾아가 흥정을 시도합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겨 주면 내게 얼마를 주겠소?” (마26:15)

그들은 은 삼십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노예 한 명이 거래되던 가격. 그 때부터 그는 예수를 넘겨 줄 기회를 찾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도 아셨습니다. 그 제자가 결국 그분을 팔아넘기리라는 것도. 제자들 모두가 그분을 버리고 도망하리라는 것도. 소위 수제자라 불리던 이조차 그분을 모른다 부인하리라는 것도.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다음, 행위적 맥락을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흙먼지 길을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집에 들어갈 때는 물로 발을 씻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이 발 씻는 일은 손님이 스스로 할 수도 있었지만. 그 집 주인의 종이 해야 할 직무이기도 했습니다. 즉, 자기 종을 통해 손님의 발을 씻겨 주는 것은 집 주인이 그 손님에게 환대를 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 하는 일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한 권위 있는 주석(New Interpreters’ Bible Commentary)에 따르면. 그것은 ‘그분의 집’에 초청받은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환대’(hospitality)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분의 집’이란, 지금 예수님 일행이 있는 그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본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었고, 이제 다시 돌아가 머무실 곳. 또한 후에 제자들도 마침내 이르게 될 하나님의 집.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처소를 의미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요14:2-3)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 계신 그곳으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은 그 영원한 집의 주인 자격으로 친히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며. 그들에 대한 변함없는 환대를 표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후에 그들이 두고두고 이 때 일을 기억하며 끝까지 담대하게 그곳을 소망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예수님의 행동은 또한. 그들에 대한 ‘용납’(acceptance)의 의미를 갖습니다. 누군가의 발을 씻어 준다는 건, 그의 더러운 부분을 내 손에 댄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것은 씻겨주는 자나, 씻겨지는 자 모두에게 부담스런 일일 수 있습니다. 한 쪽에게는, 나의 부끄러움을 그와 공유하게 된다는 의미이고. 다른 쪽에겐, 나의 깨끗함이 그로 인해 더럽혀질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베드로의 이 반응은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이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께* 내 발을… “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기서 ‘상관이 없다’는 말은 ‘예수님과의 공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과의 공유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안으십니다. 이로부터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나는 점점 더 나를 그분께 내어드리게 되고. 그에 따라 예수님과 더 많은 것을 공유하며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을 씻어 주셔야 했습니다. 그가 조만간 실패하고 좌절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때 베드로가 이 때 일을 기억하며 다시 용기내길 바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그의 더러운 발을 자기 손으로 받아 안으셨다는 걸 생각하며 말입니다.

이제, 관계적 맥락을 생각해봅니다. 그 날 예수님이 발을 씻어 주신 사람들 중에 ‘그 사람’도 있었을까. 1절에서,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하고. 바로 이어 2절에서 뜬금없이, 가룟 유다 얘기를 꺼낸 요한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럼 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딴 데 가 있었을까, 아니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을까. 힌트가 되는 몇 구절을 찾아봅니다. 10절 하반절에,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21절에,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26-2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어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로부터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날 저녁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어 주신 사람들 중에 그도 끼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은 *그런 사람까지* 사랑으로 섬기셨는가. 그의 발을 씻어 주신 예수님의 행동은 어떤 의미였을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가 후에 자기를 팔아 넘길 걸 아시며 그를 제자로 택하셨을까요. 그렇게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그는 분명 약점을 지닌 인간이었지만, 그것은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유다는 돌이킬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을 모두 살리지 못하고 끝끝내 예수님에게서 떨어져나가 파멸한 이의 대명사라 할 것입니다. 그는 돈의 유혹에 취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 틈을 파고듭니다. 예수님의 길에 실망한 그의 마음에 그분을 돈받고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나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그 나쁜 생각을 몰아내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문 2절과 27절 사이의 시간에 주목합니다.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넣어준 나쁜 생각이 존재할 때와. 아예 사탄이 그의 속에 들어가 이를 실행하게 되는 시점 사이. 그 사이의 시간은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역할을 맡기로 이미 결정된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었으나 불행히도 그렇게 되어버린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마지막 기회의 시간에. 예수님은 그분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환대와 용납을 그에게 베푸신 것 아닐까요. 혹시 그가 돌이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만약 그가 돌이킨다면 아직 예수님 안에 그의 자리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끝까지 그의 발을 씻어 주시며 기다리고 계셨던 것 아닐까요.

하지만 베드로와 달리 유다는, 끝끝내 돌이키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그렇다면 유다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은 그저 부질없는 일이었을까.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말하곤 하지요. “그래봐야 소용없어! 결과는 똑같애! 원래 그런 사람이야!”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행하는 사랑과 섬김, 환대와 용납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렇게 행한 결과, 내가 기대했던 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면, 모두 무의미한 것인가. 영성학자 헨리 나우웬은 ‘환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환대는 우선적으로,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적이 아닌 친구가 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것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자리를 그들에게 주는 것이다.* 애초부터 ‘환대’란, 상대를 내 뜻대로 변화시키는 걸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환대’는, 나 자신을 ‘상대방을 위한 자유의 공간’으로. 또한 ‘하나님에 의한 변화의 공간’으로 내어놓는 일과 관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보면 환대는, 진정 자유로운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실천이 아닐까요. 자유는 능력(capacity)이 아니라 실천(practice)입니다. 나에게 이런 저런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 말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지금 내가 그와 같은 것들을 행할 수 없다면, 나는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지막 기회의 시간에 그분에게 주어진 자유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사랑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죽음조차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랑은 당장에 상대방을 내가 기대한 대로 변화시킬 순 없을 지 몰라도. 누구도 예상치 못한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신비한 공간을 창출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데는 목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본문 14-1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사랑과 섬김, 환대와 용납을 베푸신 것처럼. 그들도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행하기를 바라시며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그 시절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해 듣고 또 체험한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릴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영광스런 그분의 나라에 초청하신다는 ‘용납’과 ‘환대’의 복음이 아닙니까. 다른 이에게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일과 관련해. 많은 경우 우리는 그 사람과 나 사이에서 이리재고 저리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둘 사이의 관계 말고,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하라 하십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셨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집 주인 자격으로. 그러나 하나님께 보냄받은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환대와 용납의 마음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미 우리가 속한 그 하나님의 집 주인의 자녀 자격으로. 서로 겸손히 용납과 환대를 실천하며 살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며” 살 자신은 없습니다. ‘끝까지’는커녕, 약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도 자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강요될 수 없는 것임을 압니다. 사랑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그만큼 사랑할 수 없다고 해서, 내일도 그러리라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은 강요될 수 없는 것이지만, 또한 막을래야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스스로를 속이거나 정당화하려는 유혹입니다. 지금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지금 내가 하는 ‘이것’이 충분히 옳다 할 순 없습니다. 미움과 배제와 분리가 답은 아닙니다. 힘들어도, 용서와 포용과 화해를 향해 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거기에 이르길 소망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생각할 때. 아마 우리 중 누구도 이미 도달했다 말할 수 있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남은 일은, 각자 진솔하고 우직하게 한 걸음씩 그분을 따르는 일 아닐까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